



제 6 편 종교 宗教

제4장 천주교 天主教

1. 장수 천주교 연원(長水 天主教 淵源)

천주교란 이름은 동양에서 불리는 이름이고, 본래의 교명은 가톨릭교다, 가톨릭은 희랍어에서 유래된 보편적 세계적이란 뜻이라 한다.

AD 33 년에 창립된 교로서 천주의 가르침에 따라 베드로 등이 완성한 종교다.

교리는 첫째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의무를 갖는다. 둘째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창조자인 하느님을 받드는 의무를 지고 있다 셋째로 선과 악을 구분하여 천주를 모시고 천주의 10 계명을 잘 지키면 선이라 천당으로 가게 되고 천주를 공경하지 않거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악이라 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천주는 체는 하나이고 위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있다.

천주가 사람에게 계시한 것을 그리스도 이전에 것은 구약이며 그리스도 당시에 기록한 것은 신약이라 한다.

성경에 수록되지 못하고 교회전통에 의하여 전해오는 계시를 성사라 한다. 교회의 조직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인 베드로를 계승한 교황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1517 년에 종교개혁운동을 일으켜서 프로테스탄트 교파를 이루고, 가톨릭에서 분리되어 나간 후 가톨릭을 구교 프로테스탄트를 신교라 한다.

동양에 전래된 것은 몽고족이 구라파를 공격한 후부터인데 때는 13세기 경이다. 한국에 전래된 것은 1594년(선조 24년)에 포르투갈 신부 세스페데스가 임진왜란 때 일본의 종군 신부로 처음 왔으며 일본에 돌아간 세스페데스는 포로로 잡혀간 우리민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선조 때나 광해군 때 이미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명나라 사신을 통해 서학사상을 받아들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이태리신부 마테오 리치를 소개하고 있다. 천주실의의 내용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1603년에는 허균이 북경을 왕래하면서 천주교를 신봉 연구하였고,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인질로 잡혀가 북경에서 선교사 아담살과 천교를 맺어 1641년(인조 23년)에 귀국할 때 서양학문과 천주교 서적을 천주상과 같이 가지고 들어 왔으나 3개월 만에 죽어 빛을 보지 못하였다.

영조 말기부터 이벽과 권일신, 이가환, 정약용이 천주교 서적을 열심히 연구하였다. 이미 신앙의 씨를 뿌려졌다.

그러나 이상은 가상적인데 불가하였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천주교에 정식으로 입교한 사람은 이승훈이다. 이승훈은 1783년(정조 7년)에 부친을 따라서 북경에 갔고, 교주 그라몽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고, 다음해에 성서와 성상을 구해 가지고 귀국하였다. 이승훈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영세받고 천주교인이 되었다.

1791년(정조 15년)에 신유아옥(辛酉邪獄)은 천주교 전래 이래 최대의 박해였다. 1801년(순조 1년)에는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이 시행되고, 이승훈 정약용 중국인신부 주문모(周文模) 등 300명의 신도가 죽은 비극이었다. 1815년(순조)에는 경상도에 1827년에는 전라도의 신자가 수난을 당하였다. 1831년에 중국교구였으나 1836년에는 조선교구로 독립하였다.

2. 장수천주교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고 1784년에 선교책과 성상을 가지고 귀국하여 사실상 천주활동이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사회나 나라의 불평 세력도 상당수가 입교한 사실도 많았다.

신자들은 견잡을 수 없을 만큼 숫자가 늘어났다. 조정에서는 그럴수록 탄압은 더 심하였다. 심지어 외국에서 온 선교사 신부까지 사육 시켰다.

1876년 5월에 입국한 불란서 신부 불랑은 조선의 6대 교주로 부임한 리

텔주교 밑에서 부주교 역할을 하였는데 1878년 1월에 최요안의 집에서 잡혔다. 청나라에 있는 리텔주교의 구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리텔주교를 청나라로 귀환케 한뒤 불랑 주교는 리텔주교의 후임으로서 리텔주교 임무를 하기 위해 나중에도 장수의 곳곳에서 선교활동을 하였으며 장수군 계북면 정지터골에서 약 1년간 활동한바 있다. 그 후 계북면 월현리 큰골로 가서 굴을 발견하여 세상의 이목을 피하며 거처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약 2개월 있는 동안 불란서 사람 도세가 찾아와 같이 기거하며 살았다. 1879년부터 1881년까지 굴속에다 학당을 설치하고 인근의 사람들에게 서구의 신학문을 가르쳤다.

그런 관계로 장수군 계북면 월현리 큰골은 장수 천주교의 발상지가 되었고 외국인을 보호한 계북면 인심은 어떠한가. 이 신부가 여기에서 피신하였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주교에게 천주교를 묻는 것 이상으로 계북 인심에게 주교를 묻고 배워야 하였을 것이다.

이곳은 장수 천주교의 발상지며 우리나라 천주교의 중흥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7대주교 성교의 씨를 뿌린 성지라 하여 신자들의 성지순례가 지속되고 있다. (불랑을 백이라 하여서 불랑주교를 이곳에서는 백주교(白主教)라 통하였다.



장수성당

- 위 치 : 장수읍 장수리 454-11번지
- 대 지 : 375 평
- 건 물 : 125 평

· 교 인 : 700 명

장수 천주교는 1945년 민족 광복전에 장수읍 남동에 성당 건물이 있었으며 그 당시 교회사업과 교인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기록이 없다.

장수읍 수분에 공소가 있어 공소에서 관리하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도 간다. 장수 성당보다 공소의 역사는 깊다.

1791년 신유사옥이래 천주교인들은 깊은 산중으로 은신하여 종교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수분지역은 대로를 주위에 두고 있으면서 사실상 은신할만 하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천주교인들 은신처가 되었으며 이 공소에는 1846년에 순교한 김대건 신부도 피신하여 다닐 때 이곳을 거쳐 갔다는 전설로 미루어 보아서 이 지방에서 천주교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사실상 근거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기록할 수 없으니 애석한 일이다.

3. 장계 천주교



장계성당

· 위 치 : 장계면 장계리 360

· 대 지 : 2,064 평

· 건 물 : 790 평

· 교 인 : 1,083명

이 지방의 천주교 활동은 1879년 백주교가 계북면 원현리 큰골에서 은신할 때부터 교인은 상당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교인이 없었다면 백신부가 아무리 산속에서 은신하였다 할지라도 2년간의 세월을 은신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지방의 천주교 활동은 은밀한 가운데 하였다.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 지방의 선교활동에 깊은 내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기록하지 못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한다.

현재도 종교로서 손색이 없으며 병원, 양돈 사업, 신용 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영농 사업까지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천주교 노단공소



번암 노단공소

- 위 치 :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992번지
- 대 지 : 400평
- 건 물 : 25평
- 신 자 : 남 15명, 여 75명

공소는 교인들이 생활상 각처에 흩어져 생활하므로 교화 관리상 성당에서 신부를 파견하여 교화하고 운영한 곳이다. 이 공소에는 장수 성당에서 신부가 직접 왕래하며 교화 운영하고 있다.

5. 천주교 동화공소

- 위 치 :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 대 지 : 1,300평
- 건 물 : 32평 부속건물 16평
- 신 도 : 남 15명, 여 55명

동화 공소는 상당한 역사가 있다. 1900 년대에 들어오면서 나라의 박해를 받아 교인들은 산을 의지하여 몸을 피하였으며 심산오지에다 근거지를 두고 종교활동을 하였다.

동화 공소는 지리산에서 장안산과 덕유산이 연결된 관계로 이곳에는 탄압당시 은신처이며 육성지이다. 김대건 신부가 이곳을 지나갔다는데 이 공소는 천주교초창기에 창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장계천주교회 쌍암공소(쌍암공소는 2009년 폐지되었음)

- 위치 :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1411-1번지
- 연혁 : 1984년
- 대지 : 94평
- 신도 : 남 8명, 여 12명

천주교인들은 대도시에도 많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으로 산간 오지에도 대단히 많다. 교인들 교화 하는 곳에는 교직자나 교인간의 주거 거리가 멀어 어려움이 많아 교화를 담당한 측에서 성직자를 파견하여 교화를 하는 까닭에 공소를 정하여 주기적으로 지도 성직자가 내왕하며 교화를 하는데 쌍암 공소는 장계 천주교회의 신부가 왕래하면서 교화한다. 어렵고 힘든 교화사업이며 비나 눈이 와도 교인은 모아지고 성직자는 찾아와 반드시 설교를 한다. 연이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성실하고 자애롭다.